

# 베트남漢字音과의 비교를 통한 韓日漢字音의 字音體系 비교연구\*

- 聲類를 중심으로 -

이상이\*\*

〈 Abstract 〉

## A comparative study of consonant systems in Sino-Korean and Sino-Japanese through comparison with Sino-Vietnamese

In this study, Sino-Vietnamese of the late post-Tang dynasty data is employed for the study of Middle Chinese, Sino-Korean and Sino-Japanese consonants.

Sounds of Sino-Vietnamese, like those of Sino-Korean, have a multi-layered structure that has been established over many periods, and many variational forms of consonants existed before the Tang Dynasty.

An important basis for reconstructing the shape of the consonant type is the process of phonological changes of the Middle Chinese. Initial consonants and final consonants changed along with the change of the lat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sounds to Qieyun sounds and further to Qin sounds of the Middle Chinese. By exploring these phonological changes in terms of the inductive method, the consonant type can be reconstructed.

The current study creates tables that compare rhymes of Sino-Korean, Sino-Japanese (Go'on and Kan'on) and Middle Chinese. Further, based on the tables, the study first draws the original forms of Kanji sounds in each language and then compares them with sounds of Sino-Vietnamese, thereby ultimately clarifying problems in reconstructed sounds of Sino-Korean/Japanese.

Field : Phonology

Keywords : Middle Chinese, Sino-Korean, Sino-Japanese, Sino-Japanese Go'on, Sino-Japanese Kan'on, Sino-Vietnamese

## 1. 서론

漢字는 본래 中國의 글자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에 전파되었으며, 漢字를 빌어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고유언어를 표기하는 대체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각 漢字의 音讀에 해당하는 中國의 발음까지도 자국의 音韻體系에 맞게 수용하였으며 자국어의 音韻變化에 따라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현재의 韓國漢字音, 일본의 吳音과 漢音, 베트남漢字音은 각각 자국어의 音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3422)

\*\* 명지전문대학 초빙조교수, 음운론

韻史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서로의 漢字音を 연구하는데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되며 中國語音韻史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日本漢字音에서 나타나는 吳音과 漢音은 대부분 서로 다른 字音形으로 나타나는데, 吳音은 5세기 전후에 유입된 魏晉南北朝時代의 南朝音이 반영되어 있고, 漢音은 8세기말 唐代의 長安音이 반영되어 각 시기별 母胎로 하고 있는 층이 다르다. 이와 같이 그 유입 시기와 지역의 차이로 인해 그 字音形이 유입 시기별로 모태층을 알 수 있는 일본의 漢字音과는 다르게, 韓國漢字音과 베트남漢字音의 경우에는 표면적인 자음형으로 層的分類를 하기에는 어렵다. 이는 中國의 上古音부터 近代音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대 漢字音이 複合的인 音形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國의 韻書인 『廣韻』이나 『韻鏡』 등의 中古音을 반영한 韻書에서 나타나는 자음형을 기준으로 하여, 日本吳音과 日本漢音을 같이 對照하여 分析한다면 한국漢字音이나 베트남漢字音의 母胎를 귀납해 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朴炳采(1990)는 베트남漢字音を 切韻音에서 唐末音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字音形이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三根谷徹(1993)에서는 唐末期에서 宋代까지의 字音形이 그 母胎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학자인 Nguyễn Tài Cánh(1979)은 주로 10세기 이후의 字音形이 유입되어 모태층을 이루고 있다고 하며, 한국에서 대학원과정을 수학한 Le Tuan Son(2006)과 Pham thi Ngoc(2010)은 10세기 이후의 字音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漢字音의 母胎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마다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漢字音은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전래된 字音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中國, 한국, 일본의 漢字音を 연구하는데 있어 베트남漢字音を 자료로 인용하면서 唐代 이후의 後期자료로 단정 짓고, 이르면 8세기에서 늦게는 10세기 이후의 자음형으로 단정 짓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漢字音도 역시 韓國漢字音과 마찬가지로 여러 시기에 걸쳐 유입된 中層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唐代 이전의 漢字音도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韓國漢字音·日本吳音 및 漢音 및 中國의 中古音과 比較分韻表를 통해 各國 漢字音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層을 밝혀내고, 베트남漢字音과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韓日漢字音 再構의 문제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 2. 본론

각 나라별로 나타나는 字音形을 比較分韻表로 작성하여 외국어음으로서의 중국어음이 수용되어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일본吳音·일본漢音, 그리고 한국漢字音과 베트남漢字音의 比較 分韻表를 만들었다. 本稿에서 比較 分韻表를 만들어 사용하는 字音形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吳音資料: 法華經, 般若波羅蜜多經, 新譯華嚴經, 光明真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sup>1)</sup>

漢音資料: 佛母大孔雀明王經, 文鏡秘府論,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sup>2)</sup>

韓國漢字音: 新增類合, 訓蒙字會, 千字文<sup>3)</sup>

1) 宋在漢(2012:163-177)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2) 佛母大孔雀明王經은 李京哲(2005b:255-262)의 分韻表를, 文鏡秘府論은 柏谷嘉弘(1965:40-42)의 字音點을, 그 이외의 자료는 佐々木勇(2009:208-231, 350-357, 469-480, 594-604)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3) 崔世珍(1527) 『訓蒙字會』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影印本(1971), 『新增類合』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베트남漢字音: 三根谷徹(1993) 『中古漢語と越南漢字音』의 越南漢字音對照表

그러나 사용하는 字例 數가 많아서 例字만으로도 수십여 장의 분량이므로 지면 관계 상, 대표 자음형으로만 표기한다.

이하, 중국의 中古音은 MC로, 韓國漢字音은 SK로, 日本漢字音의 吳音은 SJG로, 漢音은 SJK로, 베트남漢字音은 SV로 약칭하며<sup>4)</sup>, 모태로 추정하는 층위 분류에서 사용하는 약자로서 A는 南北朝音을, B는 切韻音을, C는 秦音을, D는 近世音을, E는 近代音을 나타내는 약식표기로 하며 모태를 추정하기 어려운 자음형은 공란으로 남긴다.

## 2.1 牙音系

中古音의 牙音系는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표1〉 牙音系聲母

聲母		MC			SV	反映 字例	母胎
		A	B	C			
清	見母	k			c · k · qu/k/	615字	AB
					d · gi/j/	128字	DE
次清	溪母	k <sup>h</sup>			kh/x/	288字	AB
					c · k · qu/k/	38字	AB
濁	群母	g	k <sup>h</sup>	c · k · qu/k/	225字	AB	
				kh/x/	4字	C	
清濁	疑母	ŋ	<sup>n</sup> g	ng · ngh/ŋ/	241字	AB	
				nh/ɲ/	27字	E	

影印本(1972), 韓渡 『千字文』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影印本(1973)을 사용한다.

4) MC는 Middle Chinese, SK는 Sino-Korean, SJ는 Sino-Japanese, SJG는 Sino-Japanese Go'on, SJK는 Sino-Japanese Kan'on, SV는 Sino-Vietnamese의 약칭에 해당한다.

〈표2〉 牙音系聲母變化

聲母		中古音	
		南北朝音 ≫ 切韻音 ≫ 秦音	
清	見母	k	
次清	溪母	k <sup>h</sup>	
濁	群母	g	k <sup>h</sup>
清濁	疑母	ŋ	<sup>n</sup> g

上記의 표와 같이 牙音系에서 나타나는 자음형을 보았을 때, 中古音에서 切韻音까지 母胎로 추정되는 자음형은 A 층과 B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母胎의 판별에 근거가 되는 것은 中古音 시기의 음운변화 중의 하나인 濁字의 次清字化와 清濁字의 鼻音性 약화 현상으로 인해 秦音에서는 濁字의 次清字化되어 群母 /g/가 /k<sup>h</sup>/로 변화한다. 유기음과 무기음을 구별하는 베트남漢字音에서 濁字의 次清字化를 반영하였다면 群母에서도 次清字인 溪母와 동일하게 [kh/χ/]로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kh/χ/]로 반영된 것은 4字이며, 225字가 /c/·/k/·[qu/k/]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群母에서의 반영을 中古音의 음운변화에 맞추어 비교해 본다면 濁字의 次清字化를 반영하지 않은 자음형이 대부분이므로 질운음에 해당하는 B 층까지를 母胎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秦音에서는 清濁字의 鼻音性 약화로 인하여 疑母성모 /ŋ/에서 /<sup>n</sup>g/로 변화하는데, 秦音을 반영했을 경우 濁字와 같은 /k/로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ng/ŋ/]로 반영된 241字는 A 층과 B 층을 母胎로 하는 자음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E 층으로 분류해 놓은 [nh/n/]성모는 /n/성모의 반영으로만 본다면 /ng/의 비음성이 약화된 것으로, 秦音期 이전의 성모에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자음형으로 추정되므로 결과적으로는 唐宋代 이후에 해당하는 近代音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C 층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牙音系 자음형에서의 베트남漢字音은 切韻音 시기의 자음형이 유입된 이후에 秦音의 자음형으로 혼입된 흔적이 있으며, 近代音의 영향까지도 가미된 변화과정의 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 2.2 喉音系

中古音의 喉音系는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표3〉 喉音系聲母

聲母		MC			SV	反映 字例	母胎
		A	B	C			
清	影	?			ʔ	72字	AB
					nh/n/	4字	DE
					v/w/	1字	AB
					l/l/	1字	
次清	曉	h			h/h/	63字	AB
					kh/k <sup>h</sup> /	2字	

				ng/ŋ/	1字	
濁	匣	f	h	h/h/	99字	AB
				g/g/	2字	AB
				nh/n/	1字	DE
				ng/ŋ/	1字	AB
				th/tʰ/	1字	C
清濁	于	'∅	'∅ 'j	v/w/	31字	AB
				h/h/	4字	
				d/'j/	1字	C
				b/b/	1字	
	喻	'j		d/'j/	87字	ABC
				nh/n/	1字	DE

〈표4〉 喉音系聲母變化

聲母		中古音	
		南北朝音 ≫ 切韻音 ≫ 秦音	
清	影母	ʔ	
次清	曉母	h	
濁	匣母	f	h
清濁	于母	'∅	'∅·'j
	喻母	'j	

위의 표와 같이 喉音系 전체로 보았을 때 SV의 모태는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喉音系 影母에서는 中古音에서 清字에 해당하는 자음으로 /h/의 無氣音인 /ʔ/라는 語頭子音을 가진 字인데, 中古音 시기에서 변화가 없었다.

SV에서 影母 78音 중 92.3%에 해당하는 72音이 母音으로 시작하는 /'∅/로, 4字가 [nh/n/]로, 1字가 [v/w/]로, 1字가 [l/]로 수용되었다.

影母는 SK와 SJG·SJK에서도 모두 성모가 母音으로 출현한다. 이는 현대의 北京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影母의 /'∅/반영은 모태층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A 부터 E 사이의 모든 층에 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음계 자음형의 주된 반영양상의 모태층으로 같이 추정할 수밖에 없다.

SV의 /'∅/반영 중에서 [v/j/]로 반영된 것은 15字인데, 開口1等 寒韻의 [yên安]과 開口4等 先韻의 [yên咽煙宴] 이외에는 모두 3等 乙類에 속하는 韻이다.

[nh/n/]로 반영된 4字는 모두 開口3等 眞韻 甲類의 [nhân因姻, nhât一壹]인데, SV에서는 娘母와 疑母에서 이 [nh/n/]로 반영된 예외를 볼 수 있다. SV에서 娘母의 [nh/n/]는 泥母의 [n/n/]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MAC를 모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影母에서 [nh/n/]로 반영한 것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SV의 母胎가 된 일부 방언에서 疑母와 影母가 娘母化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v/w/]로 반영된 1字는 合口3等 元韻의 [viên媛]인데, SV에서는 合口 3等的 于母가 주로 [v/w/]

로 반영되었다.

[l/ɺ]로 반영된 1字는 合口2等 刪韻의 [loan灣]인데, SJK에서도 동일하게 [ラン灣]으로 반영되었는데, [灣]이 多音字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來母에 속하는 [鸞·鸞·鸞] 등의 類推音으로 추정되며 SV와 SJK에서 동일한 字를 동일한 유추음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漢字音은 그 당시의 교역이나 漢字音의 전과경로에 의하여 유추음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가능성도 있다.

曉母는 중국 中古音에서 次淸字에 해당하는 자로 /h/라는 語頭子音을 가진 字인데, 中古音에서 변화가 없다.

SV에서 총 66音 중 63字가 [h/h/ɺ]로, 2字가 [kh/kʰ/ɺ]로 나타나며, 1字만이 [ng/ŋ/ɺ]로 수용되어 나타난다.

曉母에서는 中古音에서 진음까지 /h/성모의 시기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성모변화를 통하여 그 母胎를 추론하기는 어려우며, 성모반영 외에 韻母의 반영을 통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kh/kʰ/ɺ]로 반영된 2字는 開口 3等 尤韻 乙類의 [khuu嗅]와 合口 1等 灰韻의 [khôi灰]인데, SV에서는 溪母에서 [kh/kʰ/ɺ]로 주된 반영이 나타난다.

[ng/ŋ/ɺ]로 반영된 1字는 開口 3等 戈韻의 [ngoa靴]인데, SV에서는 疑母에서 [ng/ŋ/ɺ]로 주된 반영이 나타난다.

匣母에서는 중국의 中古音에서 濁字에 해당하는 자로, /h/의 有聲音인 /ɦ/라는 語頭子音을 가진 字인데, 상고음부터 中古音까지는 有聲音인 /ɦ/였지만, 漢音의 母胎音에 해당하는 唐나라 시기의 長安音에서는 有氣音化하는 음운변화를 거쳐 次淸字인 曉母/h/로 統合되었다.

SV에서 총 104字 중 99字가 曉母와 같은 [h/h/ɺ]로 나타나며, 2字가 [g/g/ɺ]로 반영되었고, 1字가 [nh/ɲ/ɺ]로, 1字가 [ng/ŋ/ɺ]로, 1字가 th/tʰ/ɺ로 나타난다.

匣母에서는 中古音에서 濁字에 해당하는 자로 唐代 후기 濁字의 次淸字化로 변화하는 음운과정이 있었다. 즉, 유성음인 /ɦ/에서 무성음인 /h/로 변화하기 때문에 匣母에서 무성음인 /h/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中古音에서의 음운변화과정 이후의 자음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으며 대부분의 선행학은 이와 같은 이유로 SV의 모태를 진음 이후의 자음형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하지만, SV의 음운 체계에서는 有聲音과 無聲音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匣母에서 無聲音인 /h/로 수용한 것이 후기 中古音의 체계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匣母의 /h/반영만으로 그 母胎를 추론하기는 어려우며, 曉母에서와 같이 성모반영 이외에 韻母의 반영을 통한 분석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g/ɺ]로 반영된 1字는 開口 2等 皆韻에서 [gioi械]와, 開口2等 佳韻에서 [giai解]에 해당하며, SV에서는 見母와 群母에서 [g/g/ɺ]로 반영되었다.

[nh/ɲ/ɺ]로 반영된 1字는 開口 2等 山韻에서 [nhan閑]이며, SV에서는 娘母가 [nh/ɲ/ɺ]로 반영되었다.

[ng/ŋ/ɺ]로 반영된 字는 開口 1等 痕韻의 [ngân痕]이며, SV에서는 疑母가 [ng/ŋ/ɺ]로 반영되었다.

于母는 중국 中古音에서 母音으로 시작되는 淸濁字로 모두 3等 乙類韻에 속한다. 中古音의 전기부터 中古音의 중기까지는 /ø/이었지만, 中古音의 후기에서는 于母 /ø/가 前舌化하여 喻母 /j/에 統合되었다.

SV에서 총 37字 중 31字가 [v/w/ɺ]로, 4字가 [h/h/ɺ]로 나타나고, 1字가 [d/j/ɺ]로, 1字가 [b/b/ɺ]로 반영되었다.

[v/w/ɺ]로 반영된 자레는 /w/에서 변화된 것이므로 母音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j]로 반영된 사례도 半母音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d'/j]는 母胎가 다른 층으로 다시 구별할 수 있다. [d'/j]는 喻母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喻母와 동일한 반영으로 볼 수 있으므로 3等韻에서 乙類字音이 甲類字音으로 합병하는 음운변화를 반영하여 [d'/j]로 나타나는 자음형은 前舌化한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즉 于母가 喻母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일본의 漢音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唐代 長安音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中古音의 후기시대를 母胎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구별되는 [v/w]로 반영된 사례는 中古音 시기에서 3等韻의 乙類字音이 甲類字音으로 합병하는 음운변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中古音 시기의 전기에 해당하는 자음형이라 할 수 있다.

[h/h]로 반영된 4字는 開口3등 尤韻 乙류의 [hutu友右有]와 開口 3等 東韻 乙類의 [hung雄]이다. 于母와 影母는 SK와 SJ에서 母音으로 반영된 점과 비교한다면 SV에서 /h/로 반영된 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어인 北京語에서도 于母字는 대부분 母音으로 나타나지만 上海지역의 方言에서는 于母字가 대부분 [h/h]로 나타나고 있다. 上海지역의 方言에서 于母字가 [h/h]로 나타나는 시기적 변화는 알 수 없지만, 上海지역의 方言과 유사한 南部地方의 方言이 SV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b/b]로 반영된 1字는 開口3等 尤韻 乙類의 [butu郵]이며, SV에서는 幫母와 並母가 [b/b]로 반영되었다.

喻母는 중국의 中古音 전기에서 /j/라는 半母音을 가진 清濁字로 모두 3等 甲類에 속하고 中古音의 시기에 변화가 없다.

SV에서 총 88字 중 87字가 [d'/j]로 나타나며, 1字만이 [nh/n]로 반영되었다. 喻母는 중국의 中古音 시기에서 /i/母音을 포함한 /j/로 변화가 없었으며, 현대어인 北京語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성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喻母의 [d'/j]반영을 통한 자음형의 母胎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다시 曉母, 匣母에서와 같이 聲母반영 이외에 韻母의 반영을 통한 분석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h/n]로 반영된 1字는 祭韻의 合口 3等 甲類字에 속한 [nhuê銳]이며, SV에서는 娘母와 동일한 聲母인 [nh/n]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喉音系 聲母만을 통하여 전체의 體系上 그 추측을 이루고 있는 모태층을 파악하기는 곤란한 점도 있지만 다른 성모의 변화수용과정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 것은 切韻音 시기의 음이 대부분이며, 일부 남북조음이 혼재하고 있다.

### 2.3 舌音系

中古音의 舌頭音과 舌上音은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표5〉 舌音系聲母

聲母			MC			SV	反映 字例	母胎
			A	B	C			
清	舌頭	端	t	t	t	d/d/	60字	AB
				t	t	t/t/	1字	AB
	舌上	知		t	t	tr/t/	30字	BC
				t	t	ch/c/	3字	
					d/d/	2字	AB	

次清	舌頭	透	t <sup>h</sup>	t <sup>h</sup>	t <sup>h</sup>	th/t <sup>h</sup> /	38字	AB
						s/s/	1字	
						ḏ/d/	1字	
	舌上	徹		t <sup>h</sup>	t <sup>h</sup>	s/s/	5字	
						tr/t/	4字	BC
				ch/c/	1			
濁	舌頭	定	d	d	t <sup>h</sup>	ḏ/d/	91字	AB
						th/t <sup>h</sup> /	1字	C
						kh/k <sup>h</sup> /	1字	
	舌上	澄		d	t <sup>h</sup>	tr/t/	47字	AB
						x/s/	1字	
清濁	舌頭	泥	n	n	ᵰd	n/n/	24字	AB
						n/n/	6字	AB
	舌上	娘		ᵰ	ᵰd	nh/n/	3字	DE
次濁	半舌	來	l			l/l/	106字	AB
						kh/k <sup>h</sup> /	1字	

〈丑6〉 舌音系聲母變化

聲母			中古音		
			南北朝音 ≫ 切韻音 ≫ 秦音		
清	舌頭	端	t	t	t
	舌上	知		t̚	t̚
次清	舌頭	透	t <sup>h</sup>	t <sup>h</sup>	t <sup>h</sup>
	舌上	徹		t̚ <sup>h</sup>	t̚ <sup>h</sup>
濁	舌頭	定	d	d	t <sup>h</sup>
	舌上	澄		d̚	t̚ <sup>h</sup>
清濁	舌頭	泥	n	n	ᵰd
	舌上	娘		ᵰ	ᵰᵰ
次濁	半舌	來	l		

上記의 표와 같이 舌音系 전체로 보았을 때 SV의 모태는 切韻音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舌音系에서 母胎층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중 첫 번째는 中古音에서 舌上音의 分立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북조음까지는 舌頭音만이 존재했지만, 切韻音에서 舌頭音과 舌上音으로 나뉘는데, SV에서는 舌頭音과 舌上音이 다르게 반영되어 切韻音 이후의 층을 母胎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母胎 判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증거로는 中古音 시기의 대표적인 음운변화 현상이었던 濁字의 次清字化 현상과 清濁字의 鼻音性 약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舌上音의 娘母는 泥母와 동일한 [n/n]으로 반영된 자례가 6字이며, 이와 구별되는 [nh/n]로 반영된 자례가 3字로 나타나는데, 비음성 약화 현상을 반영하였다면 비음성인 /n/성모가 아니라 /d/성모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모만의 반영을 본다면 비음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남북조음이 주층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음성의 성모에 구개음화적 요소가 있는 [nh/n]

성모를 본다면, 비음성 성모를 유지한 채 당송 시기의 구개성을 반영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중국 남부지방 방언의 영향으로도 추정되지만 차후 과제로 삼는다.

SV에서 濁字에 해당하는 定母에서는 91자가 [d/d]로 나타나며, 澄母는 47자가 [tr/t]로 나타난다. 이것은 次淸字에 해당하는 透母의 [th/t<sup>h</sup>]와 徹母의 [s/s]와 구별하고 있기때문에 濁字가 次淸字化되는 음운변화를 거치지 않고 濁字와 次淸字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남북조음, 내지는 절운음을 모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淸濁字에 해당하는 泥母와 娘母에서도 鼻音으로 출현하고 있다. 中古音 시기의 음운변화인 淸濁字의 鼻音性 약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鼻音聲母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역시 남북조음, 내지는 절운음을 모태로 하고 있다.

따라서 舌音系 전체의 體系上 그 추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절운음에 해당하는 B 층이며, 일부 남북조음에 해당하는 A 층이 혼재하고 있다.

〈표7〉 舌頭音과 舌上音

	舌頭音				舌上音			
	端	透	定	泥	知	徹	澄	娘
MC	t	t <sup>h</sup>	d	n	t	t <sup>h</sup>	d	n
SV	d	t <sup>h</sup>	d	n	t	ʃ	t	n

위의 표와 같이 中古音의 舌頭音과 舌上音은 베트남漢字音에서 명확하게 구별되어 출현한다. 中古音에서 舌音字는 南北朝音까지는 舌頭音뿐이었지만, 切韻音에서 舌上音이 分立한다. 베트남漢字音에서 舌頭音과 舌上音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베트남漢字音이 기본적으로 切韻音의 B 층까지를 母胎로 한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 2.4 齒音系

中古音의 齒音系는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표8〉 齒音系聲母

聲母		M			SV	反映 字例	母胎	
		A	B	C				
淸	齒頭	精	ʈ	ʈ	ʈ	t/t/	224字	AB
	齒上	莊	tɕ	tɕ	tɕ	tr/t/	60字	AB
						ch/c/	11字	BC
	正齒	照	tɕ	tɕ	tɕ	ch/c/	224字	AB
tr/t/						29字	BC	
次淸	齒頭	淸	ʈ <sup>h</sup>	ʈ <sup>h</sup>	ʈ <sup>h</sup>	th/t <sup>h</sup> /	166字	BC
	齒上	初	tɕ <sup>h</sup>	tɕ <sup>h</sup>	tɕ <sup>h</sup>	s/s/	44字	BC
						tr/t/	7字	BC

	正齒	穿		tc <sup>h</sup>		x/s/ s/s/	60字 24字	BC BC
濁	齒頭	從	dz·z	dz	z>s	t/t/	163字	BC
	齒上	牀	dz·z	ɕ	z>ɕ	s/s/	29字	BC
	正齒	神		dz		tr/t/	15字	BC
						th/t <sup>h</sup> /	32字	BC
				s/s/		6字	BC	
清	齒頭	心	s	s	s	t/t/	306字	BC
	齒上	山	ɕ	ɕ	ɕ	s/s/	88字	BC
	正齒	審				ɕ	t/t/	6字
						th/t <sup>h</sup> /	107字	AB
				s/s/		12字	BC	
濁	齒頭	邪	z	z	s	t/t/	83字	AB
	正齒	禪	z	z	ɕ	th/t <sup>h</sup> /	134字	AB
清濁	半齒	日	ŋ <sup>z</sup>		<sup>h</sup> z	nh/n/	131字	AB

## 〈丑9〉 齒音系聲母變化

聲母			中古音		
			南北朝音 >> 切韻音 >> 秦音		
清	齒頭	精	ts	ts	ts
	齒上	莊	tc	ɕ	tc
	正齒	照		tc	
次清	齒頭	清	ts <sup>h</sup>	ts <sup>h</sup>	ts <sup>h</sup>
	齒上	初	tc <sup>h</sup>	ɕ <sup>h</sup>	tc <sup>h</sup>
	正齒	穿		tc <sup>h</sup>	
濁	齒頭	從	dz·z	dz	z>s
	齒上	牀	dz·z	ɕ	z>ɕ
	正齒	神		dz	
清	齒頭	心	s	s	s
	齒上	山	ɕ	ɕ	ɕ
	正齒	審		ɕ	
濁	齒頭	邪	z	z	s
	正齒	禪	z	z	ɕ
清濁	半齒	日	ŋ <sup>z</sup>		<sup>h</sup> z

審母에서는 107字가 [th/tʰ]로 반영되어 있다.

切韻音에서 照母와 莊母의 구별이 있었는데 이것은 正齒音과 齒上音에 구별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正齒音에 속하는 성모중의 하나인 審母에서 107字가 [th/tʰ]으로 반영이 되고 齒上音인 山母에서는 [s/sʰ]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正齒音과 齒上音의 구별이 있었던 절운음 시기의 자음형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를 통하여 正齒音과 齒上音을 구별하던 切韻音 시기를 母胎로 하고 있다.

그리고 山母는 齒上音이었는데 山母에서의 [s/sʰ]반영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12字는 正齒音에서 齒上音으로 합병한 이후의 반영으로 볼 수 있으므로 秦音 시기를 반영했다는 가능성이 크다.

日母의 경우는 3等 甲類韻으로만 나타나는 것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上古音에서는 泥母/n/이었던 것이 前接하는 요음성 /i/에 의하여 口蓋音化되고, 이것이 中古音 시기에서는 하나의 聲母로서 자리를 굳힌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SV에서 日母와 泥母의 자음형이 [nh/nʰ]와 [n/n]로 반영되어 甲類와 乙類를 구별하고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中古音 시기의 주요 음운변화인 3等韻에서 乙類가 甲類로 합병되는 음운변화가 있기 이전의 자음형이라는 증거이며 또 다른 中古音 시기의 음운 현상 중의 하나였던 濁字의 次淸字化 현상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中古音의 후기음이 아니라 切韻音을 母胎로 하고 있다.

또한, [th/tʰ]로 나타나는 반영은 禪母에서 나타나는 [th/tʰ]의 반영과 일치하므로, 中古音 시기의 음운 현상 중의 하나인 淸濁字의 鼻音性弱化 현상으로 인하여 이미 有聲音에 가까운 /ʰz/로 변한 상태인 /z/를 반영한 자음형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中古音 시기에서 후기 층을 母胎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0〉 齒頭音, 齒上音, 正齒音의 聲母

	齒頭音					齒上音			正齒音					
	精	淸	從	心	邪	莊	初	牀	山	照	穿	神	審	禪
MC	t	tʰ	dz	s	z	tʃ	tʃʰ	ɕ	ʃ	tɕ	tɕʰ	dz	ɕ	z
SV	t	tʰ	t	t	t	t	ʃ	ʃ	ʃ	c	s	tʰ	tʰ	tʰ

中古音 초기에서의 처음계 자음형은 南北朝音까지는 齒頭音과 正齒音으로 구별되었다. 이것이 切韻音 시기에서는 다시 齒頭音과 正齒音, 齒上音으로 분립하여 3가지 齒音體系로 나뉘어 지며, 中古音 후기에 와서는 다시 齒上音은 正齒音으로 합류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상기의 표와 같이 中古音에서 齒頭音과 正齒音, 그리고 齒上音은 SV에서 명확하게 구별되어 반영되었다. SV에서 齒頭音·正齒音·齒上音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나타난다는 것은 3가지 齒音體系인 절운음 시기의 자음형이라는 방증이므로 기본적인 자음형의 반영층은 切韻音의 시기로 보인다. 그러므로 SV의 齒音系에서도 기본적으로 切韻音인 B 층을 모태층으로 한다.

이러한 결과는 SV가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전래된 字音이라는 종래의 학설과는 다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주층 이외에 나타나는 자음형으로는 南北朝音인 A 층과 秦音 시기인 C 층의 자음형이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V의 자음형은 기본적으로 절운음 시기인 7세기 전후를 母胎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전후의 中古音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5 脣音系

中古音의 脣音系는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표11〉 脣音系聲母

聲母			MC			SV	反映 字例	母胎
			A	B	C			
清	重脣	幫	p	p	p	b/b/	198字	ABC
						t/t/	37字	AB
	輕脣	非			f	ph/f/	87字	C
						b/b/	4字	AB
次清	重脣	滂	p <sup>h</sup>	p <sup>h</sup>	p <sup>h</sup>	ph/f/	96字	ABC
						b/b/	18字	ABC
	輕脣	敷			f <sup>h</sup>	ph/f/	65字	C
						th/t <sup>h</sup> /	2字	AB
濁	重脣	並	b	b	p <sup>h</sup>	b/b/	226字	AB
						t/t/	35字	AB
	輕脣	奉			v> f <sup>h</sup>	ph/f/	110字	C
						b/b/	5字	AB
清濁	重脣	明	m	m	ᵐb	m/m/	291字	AB
						d/j/	21字	C
	輕脣	微			ᵐ> ᵐv	v/v/	66字	C
						m/m/	7字	AB

脣音系는 36字母 중 清字인 幫母, 非母, 次清字인 滂母, 敷母, 濁字인 並母, 奉母, 清濁字인 明母, 微母로 총 8개의 聲母가 있다. 脣音系의 漢字는 南北朝音 초기에서는 重脣音인 幫母, 滂母, 並母, 明母만이 존재했으나, 이것이 中古音 음운변화 과정속에서 輕脣音이 발생하여 重脣音과 輕脣音의 구별이 생겨나게 되서 非母, 敷母, 奉母, 微母의 輕脣音이 分立했다.

中古漢語의 모든 聲類에는 無聲無氣音인 清字와 無聲有氣音인 次清字의 구별이 있었고, 有聲音인 濁字와 鼻音인 清濁字의 구별이 있었다. 즉, 南北朝音 초기에서는 清字인 幫母/p/와 次清字인 滂母/ph/의 구별이 있었는데 輕脣音이 발생하여 清字에 非母/f/, 次清字에 敷母/fh/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濁字인 並母/b/와 清濁字인 明母/m/의 구별이 있었는데 輕脣音이 발생하여 濁字에 奉母/v/, 清濁字에

微母/m/이 추가되었다. 또한 並母/b/와 奉母/v/는 각각 /ph/와 /fh/로 次淸字化한다. 그리고 淸濁字인 明母/m/은 /mb/b/로, 微母/m/은 /mv/v/로 鼻音性이 약화·탈락하게 된다. 唇音系의 中古音 子音體系의 일반적인 변화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2〉 唇音系聲母變化

聲母			中古音		
			南北朝音 >> 切韻音 >> 秦音		
淸	舌頭	幫	p	p	p
	舌上	非			f
次淸	舌頭	滂	p <sup>h</sup>	p <sup>h</sup>	p <sup>h</sup>
	舌上	敷			f <sup>h</sup>
濁	舌頭	並	b	b	p <sup>h</sup>
	舌上	奉			v>f <sup>h</sup>
淸濁	半舌	明	m	m	<sup>m</sup> b
	舌上	微			ŋ> <sup>m</sup> v

이와 같이 唇音系에서는 中古音의 음운변화가 아주 확연하게 눈에 띄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重唇音의 聲母인 幫/p/, 滂/p<sup>h</sup>/, 並/b/, 明/m/의 聲母에서 輕唇音으로 변화하여 非/f/, 敷/f<sup>h</sup>/, 奉/v/, 微/m/로 분화되는 과정을 보면 聲母를 보면 어느 시기의音を 반영한 것인지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즉, 中古音에서 唇音字는 南北朝音과 切韻音까지는 重唇音뿐이었지만, 秦音에서 3等 乙類韻에 輕唇音이 분화한다. 秦音을 반영한 일본 漢音에서는 聲母에서 重唇音과 輕唇音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성모의 차별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그 韻母의 반영양상을 통해 輕唇音化를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金正彬(2005b)에서 밝힌 바와 같이 廣韻에서도 이미 半切에서 重唇音字와 輕唇音字의 구별이 있었던 것처럼, 南北朝音의 시기에서 이미 일부에서는 重唇音과 輕唇音의 구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重唇音과 輕唇音의 구별을 하고 있는 지의 여부가 모태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拙者は 輕唇音化 분화 시기를 남북조 초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모태추정의 時期 또한 기존에 주장하던 中古音 후기에서 수정하여, 적어도 中古音 중기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표는 일반적인 中古音의 성모변화를 나타낸 표이지만, 베트남漢字音에서 重唇音과 輕唇音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唇音系가 秦音의 B 층을 母胎로 한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베트남漢字音이 8세기~10세기 층을 母胎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 방증과는 상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베트남漢字音의 聲類體系가 切韻音인 B 층을 母胎로 하고 있으며, 베트남漢字音도 韓國漢字音과 같이 여러 층이 혼재하고 있어, 특히 唇音系의 경우 切韻音인 B 층을 母胎로 기본적인 體系가 성립된 이후 재차 秦音인 C 층이 體系的으로 이입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결론

漢字文化圈의 각 나라는 자국의 전승된 고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字音形 및 고행을 연구하지만, 단편 자료 및 한정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자형만으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따른다. 漢字音 연구의 선구자인 과거의 마스페로나 칼그렌과 같이 위대한 학자들의 字音 추정 방법은 방법론적인 연구의 성과에는 크나큰 공헌을 했지만, 후학들의 끊임없는 질타와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나라별로 비교와 분석의 고증으로 字音形을 추정하였지만 각 나라 마다의 音韻體系에 대한 이해 없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字音形만으로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이다.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베트남漢字音의 聲類體系는 기본적으로 切韻音인 B 층을 기층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漢字音이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전래된 字音이라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학설과는 다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주층 이외의 층도 南北朝音인 A 층과 秦音인 C 층이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漢字音은 기본적으로 7세기 전후의 切韻音을 母胎로 하고 있지만, 그 전후의 中古音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權仁漣(2009) 『改訂版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pp.3-519
- 金正彬(2004a) 「中古漢語a系韻母に於ける韓日漢字音について-中心母音の歴史的相違を中心として-」 『日本語文學』 第22輯 日本語文學會 pp.3-19
- \_\_\_\_\_(2004b) 「中古漢語e系韻母に於ける韓日漢字音に就いて-中心母音の歴史的相違を中心として-」 『日本語文學』 第26輯 韓國日本語文學會 pp.21-40
- \_\_\_\_\_(2005b) 「廣韻輕唇音九部に於ける韓國漢字音の特質について-日本吳音との比較を通して」 『口訣研究』 第15輯 口訣學會 pp.133-171
- 朴炳采(1990) 『古代國語의 音韻比較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pp.1-313
- 辛容泰(1982) 「韓國漢字音의 母胎に關する考察」 『人文科學研究』 第1輯 國제대학교 pp.121-153
- 이경철(2006) 『日本漢字音의 理解』 책사랑 pp.195-323
- \_\_\_\_\_(2014b) 「韓日漢字音 1·2等 合口 受容 樣相의 比較고찰」 『日本語文學』 第60輯 韓國日本語文學會 pp.79-95
- \_\_\_\_\_(2015a) 「日本漢字音 1·2等の -a형에 대하여」 『日語日文學研究』 第93輯 韓國日語日文學會 pp.129-145
- 이경철·이상아(2012a) 「各國 漢字音에 나타나는 肴韻의 字音形에 대하여」 『日本學報』 第91輯 韓國日本語學會 pp.231-242
- \_\_\_\_\_(2012b) 「各國漢字音의 輕唇音化에 대한 比較考察(음성운)」 『日本研究』 第18輯 고려대 일본학연구소 pp.127-143
- \_\_\_\_\_(2012c) 「輕唇音化의 반영을 통해 본 베트남漢字音의 母胎에 관하여」 『日本語學研究』 第35輯 韓國日本語學會 pp.277-295
- \_\_\_\_\_(2013) 「各國漢字音의 輕唇音化에 대한 比較 考察(양성, 입성)」 『日本學報』 第94輯 韓國日本語學會 pp.53-65
- \_\_\_\_\_(2014) 「各國漢字音における3等合口重紐の字音型について」 『日本文化研究』 第51輯 동아시아

- 일본학회 pp.249-269
- \_\_\_\_\_ (2015a) 「日本漢字音 1·2等の -a형에 대하여」 『日語日文學研究』 第93輯 韓國日語日文學會 pp.129-145
- \_\_\_\_\_ (2015b) 「베트남漢字音 開口3等 重紐의 반영양상에 대하여-陽聲·入聲韻을 중심으로-」 『日本語教育研究』 第32輯 韓國日語教育學會 pp.173-190
- \_\_\_\_\_ (2015c) 「ベトナム漢字音における開口3等陰聲韻重紐の反映様相-韓日漢字音との比較を中心に-」 『日本文化研究』 第55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187-209
- 李敦柱(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탑출판사 pp.198-202
- 이상이(2015a) 『한국·일본·베트남漢字音 韻類體系 比較研究』 東國大學校 박사학위논문 pp.18-41
- \_\_\_\_\_ (2015b) 「各國 漢字音의 開口1等韻 수용양상 비교 고찰」 『日本學報』 第105輯, 韓國日本學會 pp.125-145
- \_\_\_\_\_ (2016b) 「베트남漢字音蟹攝1·2等韻의 母胎에 대하여」 『比較日本學』 第36輯 한양대일본학연구소 pp.335-356
- \_\_\_\_\_ (2019) 「韓日越 漢字音 비교를 통한 止攝 開口 3等韻의 음운사적 고찰」 『日本語教育研究』 第49輯 韓國日語教育學會 pp.107-120
- 李相怡·國生和美(2018a) 「韓國·日本·ベトナム漢字音の1·2 等合口韻における 反映」 『日本語教育研究』 第44輯 韓國日語教育學會 pp.135-153
- \_\_\_\_\_ (2018b) 「韓日越漢字音での開口2等韻の受容様相の比較考察」 『日本語學研究』 第58輯 韓國日本語學會 pp.115-133
- 이상이·이경철(2016) 「베트남漢字音 牙音系의 반영 반양-한일漢字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第55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187-209
- \_\_\_\_\_ (2017) 「베트남漢字音 舌音系의 반영양상」 『比較日本學』 第40輯 한양대일본학연구소 pp.337-356
- 李潤東(1997) 『韓國漢字音의 理解』 螢雪出版社 pp.23-135 pp.262-264
- 이준환(2011a)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1)』 『한국어학』 제51권 한국 어학회 pp.189-219
- \_\_\_\_\_ (2011b)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2)』 『大東文化研究』 第74輯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pp.255-286
- 趙大夏(2006) 『日本吳音と韓國漢字音との對比研究-效攝の漢字音を中心に-』 『日本言語文化』 第9輯 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pp.201-213
- 有坂秀世(1957) 『國語音韻史の研究 增補新版』 三省堂 pp.303-326
- 伊藤智ゆき(2002) 『朝鮮漢字音の研究』 東京大學 학위논문 pp.301-309
- 榎木久薰(1989) 「光明真言土沙勸信記の字音について」 『鎌倉時代語研究』 第12輯 鎌倉時代語研究會 pp.215-284
- 小倉肇(1995) 『法華經音義字音對照表』 『日本吳音の研究』 新典社 pp.8-737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研究』 天理時報社 1968 (1979a에 재목) pp.535-553
- \_\_\_\_\_ (1979a) 『朝鮮漢字音の研究』 『河野六郎著作集2』 平凡社 pp.295-511
- \_\_\_\_\_ (1979b) 『資料音韻表』 『河野六郎著作集2』 別冊 平凡社 pp.209-222
- 高田時雄(1988) 『敦煌資料による中國語史の研究』 創文社 pp.140-142 pp.318-322
- 佐々木勇(1982) 『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資料篇』 汲古書院 pp.208-231 pp.350-357 pp.469-480 pp.594-604
- 沼本克明(1995) 『觀智院本類聚名義抄和音分韻表』 『日本漢字音史論輯』 築島裕(編)汲古書院 pp.160-164

- 三根谷徹(1993) 『中古漢語と越南漢字音』 汲古書院 pp.2-273
- 江佳璐(2011) 『越南漢字音의 歷史層次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學系博士論文 pp.86-129
- 董同和(1948) 『上古音韻表稿』 台聯國風出版社印行 pp.8-9
- 李方桂(2001) 『上古音研究』 商务印书館 pp.36-78
- 王力(1956) 『漢語音韻學』 中華書局 pp.99-306 pp.579-605
- Bernhard Karlgren(1985) 『中國音韻學』 李敦柱 역 一志社 pp.42-103 pp.227-232
- E. G. 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100-103 pp.112-113
- Le Tuan Son(2006)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漢字音 비교 연구-성모와 운모를 중심으로-』 嶺南大學(校 석사논문 pp.8-13
- \_\_\_\_\_ (2008)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漢字音 비교 연구-성모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제10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45-49
- Nguyễn Tài Cán(1979) 『Nguồn gốc và Quá trình hình thành cách đọc Hán Việt』 Khoa Học Xã hội Hà Nội pp.5-12
- Pham thi Ngoc(2010)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 비교연구-양국의 한자 어휘 및 漢字音운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pp.50-52

〈 要 旨 〉

베트남漢字音との比較を通じた 韓日漢字音의 字音體系比較研究

本研究は中国、韓国、日本の漢字音の研究において、ベトナム漢字音を比較資料として用い、唐時代以後の後期資料として扱われており、早ければ8世紀から遅ければ10世紀以後の字音形であるとしている。

しかし、ベトナム漢字音も韓国漢字音同様、さまざまな時期を経て受容された重層的な構造であり、唐時代以前の字音形も多数存在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字音形の母体を推定することによって、重要な根拠になることは中古音の音韻変化の過程である。中古音の南北朝音から切韻音を経て秦音に至るまで、声母と韻母の変化が有って、この音韻変化過程を通して帰納的な方法で母体になる字音形を推定することができる。

これらを韓国漢字音と日本漢字音の呉音と漢音、そして中国の中古音との比較分韻表を作ることで、それをベースに各国の漢字音の母体層を見出し、ベトナム漢字音との比較研究によって韓日漢字音の再構音に対する問題点を明らかに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論文分野：音韻論

キーワード：中古音, 韓国漢字音, 日本漢字音, 日本呉音, 日本漢音, ベトナム漢字音

■ 이상이(李相怡)

명지전문대학 초빙조교수

zzivi@hanmail.net

■ 投稿日	：	2019년	12월	30일
■ 審査開始	：	2020년	2월	5일
■ 審査完了	：	2020년	2월	19일
■ 掲載確定	：	2020년	2월	28일